



16년
군산시간여행축제, 국가대표축제 도약 시동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음 1월 11일) 제31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달 31일 전북을 방문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사진 왼쪽)이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제2차관, 전북 현안 청취

최상대 차관, 김관영 도지사 등 도 지휘부와 간담회 가져
새만금 현장 찾아 추진상황 청취·산단 입주기업과 소통
김 지사,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 등 건의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지난 달 31일 전북도를 방문했다.
연초 이러한 기재부의 방문은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현장에서 챙기고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의 간담에 이어, 한국 국토정보공사·새만금 개발사업 현장 방문,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과 산업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안 사업장 방문에 앞서 진행된 차담(茶談)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 전북도의 주요 핵심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와 새만금 남북축 도로 건설 등 대통령 직권공약 및 주요 국가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

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 차관이 직접 새만금과 지역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전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줘 고맙다"며 "기재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 새만금 입지형 도로가 생겼다. 새만금을 찾는 기업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차담 후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33센터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주)풍림파마텍, (주)씨스, (주)유먼컴퍼니,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주),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공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입대용지 추가확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건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2차전지 양극 원소재 제조회사인 성일하이텍(주)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차진지 리사이클링 등과 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부처예산 편성 전 지속적인 부처 사전 설명회들과 함께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핵심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적극 유치해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토대를 확실히 쌓아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일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
행사 관계로 2월 2일자 신문 쉽니다.

지난해 도내 화재발생
전년보다 8.7% 올라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대폭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2,156건의 화재가 발생해 63명의 인명피해와 189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화재 건수는 8.7%(1,984건→2,156건)증가하고, 인명피해는 30%(90명→63명) 감소한 수치다. 재산피해 또한 1.4%(192억여원→189억여원)감소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아오(쓰레기 등)가 28.8%(621건)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20.1%(433건), 공장 등 산업시설 13.1%(283건), 자동차 11.8%(254건) 순으로 조사됐다.
2022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10%(10명→11명)가 증가했고, 부상자는 35%(80명→107명)가 감소했다.
재산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공장 등 산업시설 47.1%(89억여원), 선박 17%(32억여원), 주거시설 10.8%(20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

이자보전 확대로 부담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은 분산

도, 소상공 금융부담 경감 나서

고금리 시대 이자부담 경감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보증부 단기 고·중금리 기존 대출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상품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별보증'은 코로나19 상황과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을 위해 장기 보증기간과 이차보전을 함께 연계한 사업이다.
고·중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예비)창업자의 재도약과 성실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민생회복 특별보증 사업 중 이차보전을 연계한 저금리 전환 상품인 '썬버드림(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사업자)'의 최초 1년 이차보전을 2%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보다 1% 늘어난 규모다.
특별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에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소상공인들이 금융 애로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참가
신청기간 내달 12일까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31일에서 3월 12일까지로 4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직위는 시도 체육회에서 12월 체제비 확보 이후 모집기간이 짧고, 체육회장 선거 등으로 조직비 시간이 필요한 점, 중구이 코로내로 단거리자 발급 중단이라는 악재가 작용한 점, 모객전담여행사에서 관광상품과 등록을 연계하는 데 따른 시간 소요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참가등록자는 5,183명(동남인 2,287명 포함)으로, 조직위는 지난해에 모집목표 인원 1만명을 못채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타 대회와는 다른 참가자 모집방식의 차이를 이해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